

#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의 분포현황과 의의

## The distribution and significance of Buddhist remains in Central Asia

김 동 훈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관

I. 머리말

II. 중앙아시아 불교유적 현황

III.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의 특징과 의의

VI. 맺음말

# 국문 요약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은 우즈베키스탄 남부, 타지키스탄 남서부 일대의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북부 지방,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 지방과 중부 사마르칸트 일대의 소그디아나 지방,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메르브 지방, 키르기스스탄 북동부 세미레치예 지방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기원 전후부터 9~10세기까지가 해당된다.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북부 지방의 불교유적은 대부분 불교사원이지만, 주르말라 스투파, 아이르탐 스투파 등 별도의 건축물 없이 스투파만 잔존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카라테파 불교사원, 파아즈테파 불교사원, 달베르진테파 도성 내외 불교사원 등은 2~4세기 쿠산시대가 중심이며 모든 사원에서 스투파가 확인되었다. 세미레치예 지방은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에 이어 많은 불교 유적이 밀집한 곳으로 7세기 이후에는 중국 불교의 영향을, 더 늦은 시기에는 티벳 불교의 영향을 받은 지역이다. 세미레치예 지방에서는 스투파는 확인되지 않으며 아크베십 불교사원의 대형 불상, 아지나테파 불교사원의 대형 열반상 등이 확인되었다.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은 시기별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된다. 2~4세기를 중심으로 한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불교문화는 중앙아시아 전기 불교문화(1기)로 쿠산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중앙아시아로 불교가 처음 전래되고 정착하여 발전한 시기이다. 7~8세기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과 세미레치예 지방이 중심이 된 중앙아시아 후기 불교문화(2기)는 인도 불교의 힌두화가 진행되어 불교의 중심지가 중국 등 동아시아로 옮겨가는 시기이다.

중앙아시아의 불교는 불과 관련된 의례의 흔적이나 화염불 벽화 등을 통해 이전에 전파되었던 조로아스터교 등 타종교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음이 확인되었다. 불교건축에서도 재지의 재료와 기후특징을 고려하여 건조벽돌의 사용, 사암층을 파고 들어간 석굴사원의 축조 등이 반영되어, 중앙아시아 지역이 문명의 전달자 역할뿐 아니라 문명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발전시켜 타지역으로 전파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중앙아시아, 불교유적, 분포현황,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세미레치예

## I . 머리말

실크로드는 고대로부터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연결하는 문화의 대동맥으로 이 길을 통해 동서양은 서로의 문물과 문화를 주고 받으며 발전해왔다.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교류에는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정신문화의 교류 또한 중요한데, 특히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인 불교의 이동 또한 중요한 흐름을 차지한다.

본 논문은 인도 북부에서 발생한 불교가 한중일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불교유적 현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시기적 발전과정을 고찰하여 이 일대 불교유적이 갖는 불교 발전과정에서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한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불교의 초기모습과 전파과정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중앙아시아 일대 초기불교유적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중앙아시아라는 지리적 공간은 구소련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 5개국을 가리킨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타지키스탄 공화국, 투르크메니스탄 공화국,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그리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이 이에 포함된다. 이 경우는 가장 좁은 의미이며 서투르크িস탄으로도 불린다. 이에 반해 가장 넓은 의미에서 중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동투르크িস탄)와 티베트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몽골까지를 포괄한다. 이는 ‘내륙아시아’ 또는 ‘중앙유라시아’ 등의 용어와 거의 같은 의미이다(마노 에이지 외 2009: 15~16). 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서투르크িস탄)에 분포한 불교유적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 II . 중앙아시아 불교유적 현황

중앙아시아의 불교유적은 우즈베키스탄 남부 테르메즈, 타지키스탄 남서부 바흐시 강 일대의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더 정확히는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 북부 일대),<sup>1)</sup> 우즈베키스탄 동부 페르가나 지방, 우즈베키스탄 중부 사마르칸트 일대의

1) 박트리아는 고대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기원전 550~기원전330)의 속령 중 하나로 아무다리야(고대 옥수스 강)의 남북안에 위치한 광대한 평야지역이 그 범위이다. 현대의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과 타지키스탄, 우



[그림 1] 중앙아시아 불교유적 분포도

1. 카라테파 불교사원 2. 파야즈테파 불교사원 3. 칭기즈테파 유적 4. 하킴 앓 테르메즈 묘역 불교 석굴 5. 주르말라 스투파 6-7. 아이르탐 불교사원 및 스투파 8-9. 자르테파 도성 내 불당 및 도성 인근 스투파 10. 우시투르물로 불교사원 11·12. 달베르진테파 도성 인근 불교사원 및 도성 내부 불교사원 13. 데나우지역 추정 스투파 14. 아지나테파 불교사원 15. 카피르칼라 도성 내부 불교사원 16. 칼라이-카피르니간 불교사원 17. 히시테테파 불교사원 18. 산자르계곡 추정 불교사원 19. 쿠바 불교사원 20·21. 가우르칼라 도성 내부 불교사원 및 도성 인근 스투파 22~24. 아크베심 제1,2,3 불교사원 25·26. 크라스나야 레치카 도성 제1,2 불교사원 27. 클류첸스키 마을 인근 불교사원 28. 노보포크롭스키 마을 인근 불교사원 29. 코일릭 불교사원 30. 탐갈리타스 암각화 31. 테켈리 암각화

소그디아나 지방, 투르크메니스탄 동부 마리 일대의 메르브 지방, 키르기스스탄 북부 비시케크 동부 일대의 세미레치예 지방 등 5개 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시간적으로는 이들 지역으로 불교가 유입되는 기원 전후 시기부터 투르크계 유목민들의 유입으로 이들 지역이 투르크 민족의 땅이 되면서 이슬람화되는 기원후 9~10세기까지가 그 중심범위가 된다.

## 1.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북부지방의 불교유적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일대는 중앙아시아에서 불교가 최초로 전파된 지역이다. 박

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남부 지역에 해당한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인 박트리아 남부 일대에는 그레코-박트리아 왕국의 도읍인 박트라가 위치했던 발호가 있으며, 탁트이루스탐 불교사원, 토포이루스탐 스투파, 하이박 불교석굴사원, 쿤두즈 인근 불교사원지 등 다수의 불교유적이 확인된 바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2021: 321~325). 본 논문에서는 구소련령인 서투르크스탄의 박트리아 북부 일대로 한정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트리아-토타리스탄 북부지방은 우즈베키스탄 남동부와 타지키스탄 남서부 일대로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원정 이후, 그레코 박트리아 왕조와 쿠산 제국 등이 흥기하였다. 쿠산제국 카니슈카 1세의 통치기에 처음 중앙아시아 일대로 전해진 불교는 왕의 보호하에 제국 전역으로 전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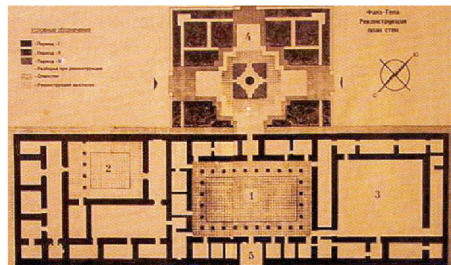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불교유적이 지상건물임을 감안할 때 현재까지 확인된 중앙아시아 유일의 석굴사원이 있는 **카라테파 불교사원**(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48~77; 국립문화재연구소·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예술학연구소 2019; 김동훈 2019: 45~47; 김동훈 2022: 63~84; 岩本篤志 2019: 61~69; Shokirjon Pidayev·Kato Kyuzo 2010: 157~185)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스님이나 참배객, 순례자들을 위한 참선 및 생활공간이 된 석굴부와 그 앞에 건조벽돌로 쌓아 만든 정원과 지상건물이 복합된 콤플렉스가 현재 남쪽언덕과 서쪽언덕에서 20여 기 확인되었으며, 북쪽언덕에는 대단위 지상건물군과 대형 스투파가 배치되어 있다. 카라테파 유적은 기원후 1세기 말에 축조가 시작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유적이다. 또한 아무다리야 일대의 불교의례 및 전파의 중심지로서, 중앙아시아 최대(最大)의 불교유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1928년 최초로 발견된 이래, 오늘날까지도 지속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불교유적이다.



[사진 1] 카라테파 불교사원 전경  
(公益財団法人 東洋哲學研究所 編 2023: 281)

**파야즈테파 불교사원**(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78~95)은 카라테파 불교사원에서 북동쪽으로 1km 떨어진 충적대지에 위치하며, 1968년 발견되어 전면 발굴조사 및 복원이 이루어졌다. 동쪽의 탑원과 서쪽의 장방형 승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승원은 동쪽에 입구가 있는데 전체 길이 117m, 폭 34m이다. 승원의 중앙 구역에는 30×20m



[도면 1] 파야즈테파 불교사원 평면도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80)

의 방형 정원이 있고 주변으로 승방이 배치되어 있는데, 가운데에 위치한 불당(금당)은 6×6m 크기로 벽면에는 불교 신앙과 관련된 벽화가 풍부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발굴조사 중 중앙아시아 불교미술사상 최고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석회암제 선정인 삼존불이 확인되었다. 주로 회랑과 강당과 같은 공용공간이 중심인 북쪽 구역에도 20×15m 크기의 정원이 있다. 남쪽 구역에서는 식당과 창고, 가마, 직공과 도공의 방 등이 확인되었다.

고대 테르메즈에서는 카라테파 불교사원, 파야즈테파 불교사원 이외에 북동모서리 인근에서도 쿠산시대의 지하 구조 불교 건축이 확인되었으나, 현재 관련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칭기즈테파 유적(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96~101, 178)은 카라테파 불교사원의 남서쪽으로 아무다리야와 접해 있는 의례, 주거, 군사기능이 복합된 요충지로 비교적 평탄한 성벽 내부에는 건물지와 불교사원, 스투파가 자리하고 있으며, 소형 불두 제작틀, 도금된 불두 등이 출토된 바 있다.

테르메즈 내성 인근에 위치한 하킴 앳 테르메즈 묘역의 북서쪽 광장에도 사암층을 파내어 만든 불교 관련 지하 석굴(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78)이 10기 이상 확인되었는데, 카라테파 불교사원의 지하 승방인 켈리아와 흡사하다. 쿠산시대 후기나 초기 중세시대와 관련된다. 이슬람시대에 이들 석굴들은 재차 이용되기도 하였으며, 지상식 구조물은 현재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주르말라 스투파**(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02~105; Akmal Ulmasov 2018: 92~97)는 고대 테르메즈 남동쪽 평야지대에 위치하는데, 동서남북 방향을 맞춰 설치한 기단부는 22×16×1.4m의 장방형 평면이다. 원통형의 탑신은 잔존높이 13m, 직경 14.5m로 추정 높이는 16m이다.



[사진 2] 주르말라 스투파 전경(필자촬영)

**아이르탐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52~ 58)은 테르메즈에서 동쪽으로 떨어져 있는 아무다리야 강변에 위치하며 1932년 약사들이 표현된 석제 부조상(아이르탐 프리즈)이 발견되어 유명해진 2세기경의 유적이다. 현재 유적 인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을 연결하는 800m 길이의 ‘우호의 다리’가 있는데, 유적이 사용될 당시에는 아무다리야를 건너는 고대 선착장을 통제할 목적으로 만든 요새 내성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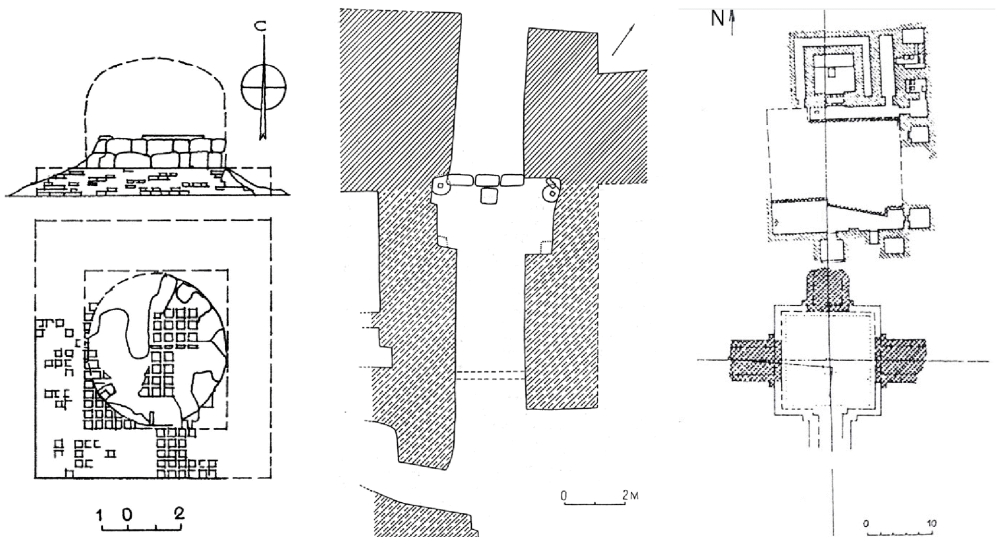
남서 부분에 불교사원이 축조되었다.

**아이르탐 스투파**(Ставиский Б.Я. 1998: 58~61)는 아이르탐 불교사원에서 동쪽으로 1~1.5km 떨어져 위치한다. 동서남북 방위를 맞춘 9.2×8.85×0.96m 규모의 방형 기단 위에 건조벽돌들을 쌓아 축조하였는데, 주변 건축물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단독으로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원통형 탑신은 지름이 5.1~5.4m이며, 잔존 높이는 1.2m이다.

**자르테파 도성 내 불당(佛堂)**(Пилипко В.Н. 1976: 59~68; 국립중앙박물관 2009: 231;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34~137)은 한 변이 400m 정도의 정방형 평면을 가진 자르테파 도성의 쇠퇴기에 성벽 위에서 확인되었다. 불당은 주거 건물의 한 부분으로 점토제의 도금한 불두가 화재로 인해 생긴 목탄층에서 출토되었다.

**자르테파 도성 인근 스투파**(Ставиский Б.Я. 1998: 63)는 자르테파 도성의 동벽 외곽 250~27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7.4×7×1.75m 규모의 방위를 맞춘 방형 기단 위에는 지름이 6m에 이르는 원형 탑신이, 기단의 남쪽으로는 3.25m 폭의 계단시설이 확인되었다.

**우시투르물로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63~68)은 테르메즈에서 동쪽으로 80km 떨어진 타지키스탄 남부에 위치한다. 40×33m 규모의 방형 평면인 소규모 불교승원과 한 변이 16~17m인 방형 스투파로 이루어져 있다. 승원은 21×20.5m인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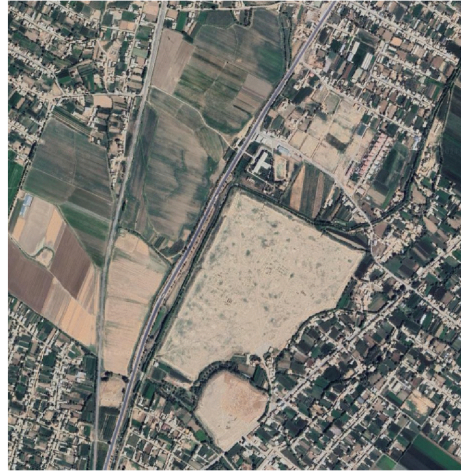
[도면 2] 아이르탐 스투파 남쪽 입면도와 평면도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61)

[도면 3] 자르테파 도성 내 불당 평면도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62)

[도면 4] 우시투르물로 불교사원 평면도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65)

형 정원의 둘레에 26개의 공간을 배치하였으며, 건물 북쪽의 가운데에 한 번이 6.3m 인 정방형의 불당이 통로로 에워싸져 있다. 3세기 말에서 6세기까지 유적이 존속하여 박트리아 북부 일대 불교 전통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달베르진테파 도성 인근 불교사원(DT-1)**(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16~133;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68~73)은 테르메즈에서 북동쪽으로 70km 거리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 수르한다리아 계곡 중류에 있는 달베르진테파 도성(650×500m)의 북벽에서 700m 정도 떨어진 면화밭에서 확인되었다. 기단을 에워싼 회랑과 같은 공간이 불교사원으로 밝혀졌는데 5.4×1.64m 크기의 북쪽 공간이 불당으로 불상, 보살상, 승려, 천신, 비천 등의 조각상과 등잔이 확인되었다. 불당의 중앙에 위치한 불입상은 등신대의 2~3배에 이르는 대형이다.



[사진 3] 달베르진테파 도성 구글사진

**달베르진테파 도성 내부 불교사원(DT-25)**(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116~133; Институт искусствознан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Центр по изучению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Университет Сока 2012)은 도성 내 폭 18m인 동서대로 북쪽인 중심지에 위치하는데 남동구역에서는 건조벽돌로 쌓은 10×9m 크기인 스투파의 기단이 확인되었다. 스투파 인근에는 내부 정원이 있으며 주위에는 10여 개가 넘는 승방이 위치한다. 정원의 벽을 따라서 조각상이 놓여져 있었는데 일부는 벽에 붙은 원상태로 확인되었다. 남동벽에 있는 폭 1.8m, 깊이 1.6m인 벽감에서는 대형의 불좌상과 양측에 두 보살이 대좌 위에서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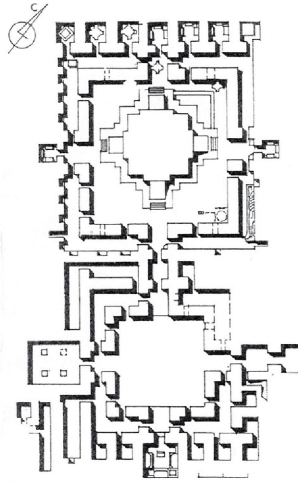
**데나우 지역 추정 스투파**(Ставиский Б.Я. 1998: 76~79)는 우즈베키스탄 남부 부드라치 중세도성의 북서쪽으로 3km가 안 되는 지점에 위치한다. 지름 15m에 이르는 원통형 탑신을 갖는 스투파는 북쪽 부분은 11.5m까지 잔존해 있다. 기단은 주변 일대가 경작지로 활용되면서 훼손되어 크기는 알 수 없으나, 남쪽에는 탑신에 이르는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 규모가 주르말라 스투파와 유사하나, 탑신을 쌓은 건조벽돌의 크기와 비율을 통해 박트리아-토하리스탄

후기 불교의 산물로 추정되고 있다.<sup>2)</sup>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북부지방에서는 2~4세기(혹은 1~4세기) 쿠산시대의 불교 유적이 제국의 쇠퇴와 더불어 기능을 상실한 후 불교문화는 쇠퇴기에 접어든다. 하지만 7~8세기(혹은 6~8세기) 불교문화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중심이 아무다리야의 테르메즈와 수르한다리아 일대에서 좀 더 동쪽으로 이동하여 아무다리야의 중상류와 바흐시 강 일대가 된다. 아지나테파 불교사원, 히시트테파 불교사원은 불당을 포함한 불교건축물과 스투파가 함께 공존하는 유적이다.

**아지나테파 불교사원(Литвинский Б.А.·Зеймал Т.И.**

1971,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80~88)은 타지키스탄 남부 쿠르간 튜베에서 12.5km 떨어진 와흐슈 강 유역에 위치하는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불교 후기의 대표적 유적이다. 북서쪽 사원공간의 중심에는 사방에 계단을 둔 십자형의 스투파가 있는데 최대 길이 약 28m, 추정 높이는 약 14m이다. 동쪽 외부 회랑에는 오른쪽 겨드랑이를 바닥에 대고 옆으로 누운 12m가 넘는 대형 열반상이 안치되어 있다. 남동쪽 승원부는 19×19m인 중앙정원이 중심에 있으며 남동쪽에는 벽화로 둘러싸인 불당과 남서쪽에는 4개의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강당 등의 부속시설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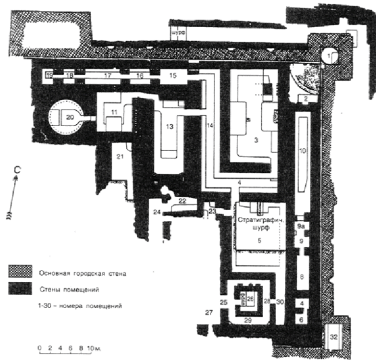
[도면 5] 아지나테파 불교사원 평면도  
(Ставиский Б. Я. 1998: 82)

**카피르칼라 도성 내부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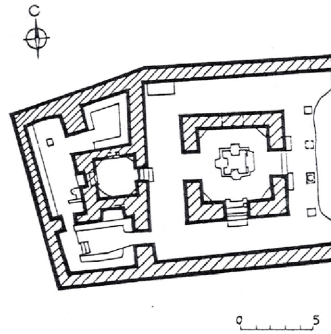
1998: 89~90)은 타지키스탄 남서부 바흐시 계곡 아지나테파 유적의 남서쪽에 위치한 카피르칼라 도성 궁전 내부에 위치하며 복도와 현관으로 둘러싸여 있다. 사원의 중심인 불당은 3.4×3.4m의 방형으로 서벽을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벽에는 부처, 연꽃,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진 벽화로 채색되어 있었다. 불당 주위로는 길이 9m, 폭 1.5m인 회랑이 에워싸고 있다. 자작나무 껍질 위에 브라흐미 문자로 쓴 필사본이 다

2) 가장 중요한 근거는 테나우 지역 추정 스투파의 탑신을 쌓은 48×24×10cm 크기의 건조벽돌이다.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불교문화 전기의 유적에서는 33×33×12cm(아이르탐 스투파는 40×40×12cm로 다소 예외이나 정방형이라는 평면형은 동일하다)인 정방형 건조벽돌을 사용하나 후기의 유적에서는 48×24×10(혹은 50×25×10)cm인 장방형 건조벽돌을 사용한다. 이처럼 건조벽돌의 크기는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 내 불교유적의 시기를 구별해주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 후기 불교문화 유적에서 사용된 장방형 건조벽돌은 아크베심 불교유적, 아크베심 제2불교유적, 크라스나야 레치카 도성 불교유적 등 세미레치예 지방의 불교유적에서도 관찰되었다.





[도면 6] 카피르칼라 도성 평면도  
(Ставицкий Б.Я. 1998: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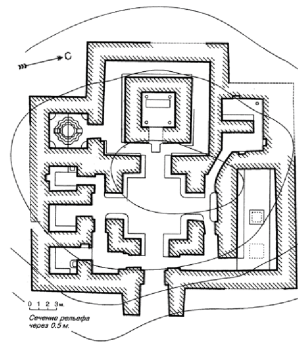


[도면 7] 칼라이 카피르니간 불교사원 평면도  
(Ставицкий Б.Я. 1998: 91)

량 확인되었다.

**칼라이-카피르니간 불교사원**(Ставицкий Б.Я. 1998: 90~92)은 타지키스탄 두산베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에산바이 마을 인근 카피르니간 강가에 있는 카피르니간 도성의 북쪽 부분에 위치한다. 불교사원의 중심에는 동쪽과 서쪽에 출입문이 있는 불당이 있다. 불당은 4.95×4.65m의 정방형 평면으로 최소 9개 이상의 대형 불상이 확인되었다. 주위로는 2.2m 폭의 회랑이 에워싸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4개의 석제 초석이 확인되어 차양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히시테파 불교사원**(Ставицкий Б.Я. 1998: 92~94)은 타지키스탄 서부 오비마자르 강 계곡에 있는 채피볼 마을 근처에 위치한다. 건물의 입구는 동쪽에 있으며, 아치형으로 된 통로를 지나면 십자형 평면의 중앙홀로 이어진다. 이곳에서 남쪽으로는 3개의 승방으로, 서쪽으로는 불당으로, 북쪽으로는 강당과 별도의 승방으로 연결된다. 중앙홀은 크기가 7×7m 이상이며, 단시설이 벽면 전체에 축조되어 있어 벤치로 기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원 구역의 남서쪽 방에 십자형의 스투파가 있는데, 스투파의 주변으로 조각상이 안치된 대좌가 확인되었다. 불당 기단 벽감에서는 아지나테파 불교사원에서 출토된 바 있는 점토제 소형 스투파 모형이 60개 이상 다량 출토되어 주목된다.



[도면 8] 히시테파 불교사원 평면도  
(Ставицкий Б.Я. 1998: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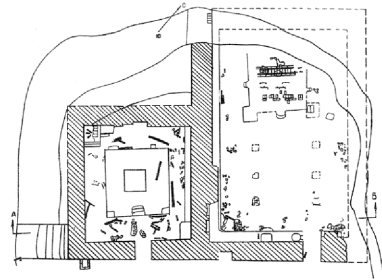


## 2. 소그디아나 및 페르가나 지방의 불교유적

소그디아나, 페르가나 지방에서는 각 1개소의 불교유적이 확인되었다.

소그디아나 지방은 시르다리야와 아무다리야 사이의 지역, 또는 더 좁게 사마르칸트를 중심으로 한 제라프산 강 유역 일대를 지칭한다. 소그디아나의 **산자르 계곡 추정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03~105)은 1930년대 이미 파괴된 유적을 추후 조사한 것이어서 많은 부분이 불명확하다. 사마르칸트 북동쪽 계곡에 있는 다블라트 마을의 언덕 상면에서 평탄작업을 하던 중 4개의 초석과 탄화기둥, 불상으로 보이는 대형 청동좌상 2개, 16마리의 사자상, 중국어가 새겨진 청동거울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페르가나 지방은 헨산 산맥의 서단과 시르다리야 상류의 파미르 고원 북단에 에워싸인 분지로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영토이다. **쿠바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06~111)은 페르가나 계곡 현재 지역중심지의 북서 경계쪽에 위치한 중세시대 쿠바 도성 내에 위치한다. 내부에 각각 기단이 시설된 동서 2개의 불당으로 구성되는데, 서쪽 불당은 11.9×11.2m 규모의 평면으로 남쪽에 출입문이 나 있다. 동쪽 불당은 21×14m 크기로 장축은 남북 방향이며 남쪽에 출입문이 확인되었다. 사람 키보다 2.5배 더 큰 대형의 점토제 불상이 엮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유적은 7~8세기로 편년되고 있다.



[도면 9] 쿠바 불교사원 평면도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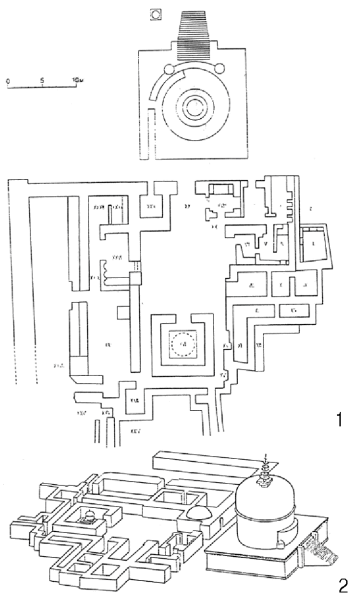
## 3. 메르브 지방의 불교유적

메르브 지방(고대 지명 마르기아나)은 실크로드 오아시스로 상의 중요한 거점의 하나로 메르브 옛터는 현재의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의 바이람 알리 부근의 무르갑 강 안에 위치하였다. 가장 오래된 중심지인 에르크 칼라 성터(면적 12ha)가 파르티아와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내성(內城)이 되고 가우르칼라로 규모가 확대되었다. 기원 후 3세기 이후 사산조 페르시아와 이슬람의 지배를 받다가 12세기 전반 셀주크조의 수도가 되기도 하였으나 13세기 초 몽골 서정군에 함락되면서 파괴되었다(정수일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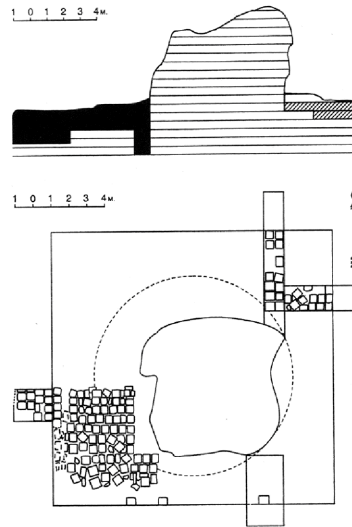
저 2013: 224~225). 가우르칼라 도성 내부에서는 불교사원이, 외부에서는 스투파가 단독으로 확인되었다.

**가우르칼라 도성 내부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94~100)은 투르크메니스탄 남동부 마리에 있는 메르브 주 행정중심지에서 30km 떨어진 바이람-알리에서 6~7km 거리에 있는 가우르칼라 도성의 남동모서리에 위치한다. 승원구역과 탑원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스투파는 14×13×3.5m인 기단부를 가지며, 지름 10m에 이르는 원통형 모습이다. 승원구역은 중앙정원이 12.5×11.5m이며 32개실을 갖는 상당한 규모이다. 불교경전이 새겨진 자작나무 껍질 필사본이 든 채색 쌍이호(雙耳壺), 불보살상과 스투파가 새겨진 점토판이 든 유물함 등이 출토되었다.

**가우르칼라 도성 인근 스투파**(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00~103)는 도성 동벽 밖 문지 남동쪽 방향으로 600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다. 지름 11m, 높이 최소 7m에 이르는 원통형의 스투파 탑신은 15.6×15.4m의 방형 기단 위에 축조되어 있었다. 1965년 긴급조사 당시 스투파 탑신에서 확인된 항아리에서는 23.5×8cm 크기의 먹으로 쓴 자작나무 껍질 불경 필사본 150매가 확인되었는데, 중앙아시아 불교 관련 필사본 중 양적으로도 그리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유물로 평가되고 있다.



[도면 10] 가우르칼라 도성 내부 불교사원  
(1. 평면도, 2. 복원도)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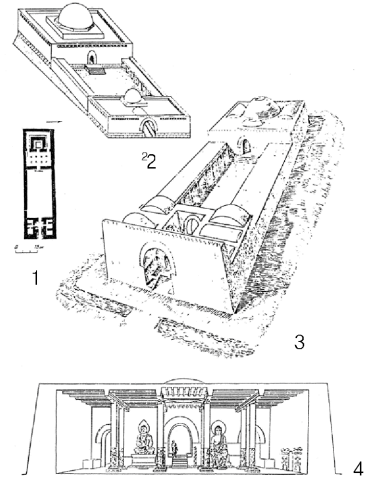
[도면 11] 가우르칼라 도성 인근 스투파 평·단면도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02)

#### 4. 세미레치예 지방의 불교유적

세미레치예 지방은 카자흐스탄 남동부와 키르기스스탄의 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예로부터 여러 유목민족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던 초원 실크로드 상의 요충지이다. 카자흐어와 키르기스어로는 ‘제티수’라 불리며 발하슈 호로 유입되는 ‘7개의 강’ 유역을 뜻한다. 역사적으로 사카, 오손, 서돌궐, 카를루크, 카라한조 등 유목민족 정권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농경과 도시 경영에도 유리하여 소그드인들이 유입되기도 하였고 중국의 영향으로 한때 불교문화가 성행하기도 하였다. 유목민과 정주민이 만나는 곳이라는 이점 때문에 수이아브(쇄엽(碎葉))나 바라사군, 알마루크, 카야루크 등 여러 도시가 형성되어 번영하다가 13세기 몽골군의 침략 이후 쇠퇴하였다.(정수일 편저 2013: 4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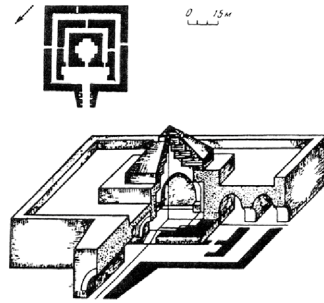
세미레치예 지방은 중앙아시아에서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 다음으로 높은 불교유적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유적은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의 후기 불교문화처럼 7~8세를 중심연대로 하는데, 발굴자에 따라 9~10세기까지도 일부 유적은 가능한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

**아크베심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11~118; Аманбаева Б.Э. 외 2015: 16~27)은 키르기스스탄 토크마크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으며, 수도인 비시케크에서는 동쪽 방향에 위치한 추강 계곡에 있는 아크베심 도성 내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크기는 76×22m로, 동쪽에 출입구가 있으며, 중앙의 정원을 지나 서쪽의 불당으로 이어지는 장방형 구조이다. 스투파는 세미레치예 지방으로까지는 확산되지 않아, 이 일대 불교사원에서는 전혀 축조되지 않는다. 대신 불당 내부 또는 불당 입구 전실에 대형 불상이 조성되어 의례의 핵심을 이루는데, 아크베심 불교사원에서는 전실에서 4구의 대형 불상이 확인되었다.



[도면 12] 아크베심 불교사원  
(1.평면도, 2-3.복원도, 4.불당 입구 복원도)  
(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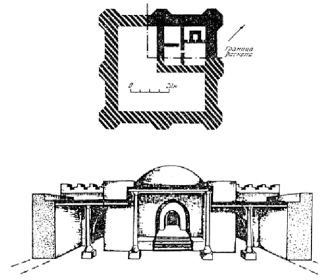
**아크베심 제2불교사원**(Зяблин Л.П. 1961; Ставский Б.Я. 1998: 118~122)은 아크베심 불교 사원에서 동쪽으로 250m, 이른 중세시대 도시유적인 샤흐리스탄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져 위치한다. 불당과 이를 에워싼 이중의 회랑으로 구성되며 전체규모는 38×38m이다. 사원으로 들어가는 출입시설은 북서쪽에 위치하며, 중앙부에 위치한 십자형 평면의 불당에서는 대좌, 불상의 조각편과 불교 도상의 벽화편 등이 발견되었다.



[도면 13] 아크베심 제2불교사원 평면도, 복원도 (Ставский Б. Я. 1998: 119)

**아크베심 제3불교사원**(Ставский Б.Я. 1998: 122~125)은 아크베심 도성의 남쪽 인근에 위치하는데, 크지 않은 불당과 몇 개의 작은 방들과 부속 식당으로 구성되었다. 불당에서는 불두, 연꽃 조각, 작은 보살상 등이 출토되었다. 불당 주변에서 난방 시설이 된 주거건물이 확인되었다.

**크라스나야 레치카 도성 불교사원**(Ставский Б.Я. 1998: 125~129; Аманбаева Б.Э. 외 2015: 36~47)은 비시케크와 토크막을 연결하는 도로 35km 지점인 크라스나야 레치카 중세시대 도성의 남벽 근처의 마을에 위치한다. 불당과 회랑, 정원 등으로 구성되는데, 불당은 크기가 6×6m이며, 주변으로 회랑이 에워싸고 있다. 회랑의 서쪽에는 아지나테과 불교사원처럼 길이 12m에 이르는 대형 열반상(좌불)이 확인되었다. 출토유물 중에는 중국에서 가져온 화강암제 불비상이 주목되는데, 높이 64cm, 폭 33cm, 두께 12~16cm이다. 앞면은 3단으로 구분하였는데, 맨 위부분에는 중앙의 불좌상과 양측면의 협시보살을 부조하였다.



[도면 14] 크라스나야 레치카 도성 불교사원 평면도, 복원도(Ставский Б. Я. 1998 : 126)

**크라스나야 레치카 도성 제2불교사원**(Ставский Б.Я. 1998: 129~130)은 도성의 외곽 상공업 지대의 남벽 근처에 위치한다. 32.7×30m 크기의 방형 평면을 갖는 불교 사원으로 불당은 3.2×3.2m의 크기이며 출입구를 제외한 세 면에는 회랑이 에워싸고 있다. 현재 기존 유구에 덧붙여 일부 구간이 복원 중이며 지붕을 설치하여 강우로 인한 추가적인 유구 훼손을 막고자 노력 중이다.



[사진 4] 크라스나야 레치카 도성 제2불교사원 전경(필자촬영) [사진 5] 크라스나야 레치카 도성 제2불교사원 전경2(필자촬영)

**클류첵스키 마을 인근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30~132)은 키르기스스탄 비시케크 서쪽으로 10km 떨어진 클류첵스키 마을 북동모서리에서 확인되었다. 유적 일대가 주민들의 공동묘지로 사용되면서 심하게 훼손되어 유적의 전체 평면형태는 알 수 없으나 승려들의 거주를 위한 켈리아 형태의 작은 방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강역사상, 광배장식, 벽화편 등이 발견되었다.

**노보포크롭스키 마을 인근(노보포크롭스키-2 도성 내부) 불교사원**(Ставиский Б.Я. 1998: 132~133)은 키르기스스탄 비시케크와 토크막을 연결하는 도로의 11km 지점에 있는 노보포크롭스키 마을 북쪽 변두리에 위치한 노보포크롭스키-2 도성 내부에서 확인되었다. 8㎡ 면적의 시굴조사에서 석고제 불두와 도금된 청동제 소장 등이 출토되어 불교건축물의 존재가 추정되었으나 건물의 구조와 성격 등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 **코일릭 불교사원(안토놉카 성터 불교사원)**

(카를 바이파코프 2017: 573~576)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탈디코르간에서 북동쪽으로 190km 떨어진 아시 강 인근 코일릭 마을의 동쪽 변두리에 위치한다. 유적은 8~10세기에 축조 및 사용되다가 자연재해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13세기에 재건되었다. 전체 규모는 16.2×18m이며 잔존높이는 2~3.5m이다.



[사진 6] 코일릭 불교사원 전경(필자촬영)

사원의 중심건물인 불당은 정방형이며, 사면을 회랑으로 둘러싸고 있어 아크베심이나 크라스나야 레치카 불교사원과 유사한 평면이다. 사원의 지붕은 갈대를 깔고 그 위에 두껍게 흙을 덮어 평지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세미레치예 일대는 17세기 이후 티벳 불교가 흥성하면서 텐산산맥 이북 지역에서



불상, 불탑, 부처의 진언인 만트라를 새긴 암각화, 티벳 불교사원 등이 다시 출현한다.

**탐갈리타스 암각화**(카를 바이파코프 2017: 578; Ерофеева И.В. 2017: 39~41)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 캅사가이 협곡 일리 강 우안의 고대 나루터 주변에 위치하는 중세시대 불교 유적이다. 티베트 불교와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카자흐스탄에서 가장 유명한 암각화 중 하나로, 중심 바위에는 삼존불이 새겨져 있다. 가운데에는 관음보살이, 양옆에는 석가모니 부처와 약사여래의 모습이 확인되고 있으며, ‘옴 마니 파드메 훔’ 이라는 부처의 진언인 만트라가 티베트어, 팔리어, 몽골어와 만주어로 새겨져 있다. 교역로 상의 중요한 지점인 일리 강 도하장소에 위치하여, 대상무역 상인들에게 상행위(商行爲)의 번성과 내세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테켈리 암각화**(Ерофеева И.В. 2017: 38~39)는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의 주도인 탈디코르간에서 동쪽으로 30km 떨어진 테켈리 마을의 북동쪽을 흐르는 카라탈 강의 지류인 코라 강의 하류 우안에 위치하며, ‘켈린섹타스 입석’으로도 불린다. 3.0×4.2×3.6m 크기의 회색사암에 얇은 돌을새김으로 그림과 명문이 표현되어 있는데, 암반 서쪽의 평탄면에 73×60×51cm 크기의 피라미드형 스투파와 내부에 가부좌한 석가모니가 새겨져 있고 스투파 하단에는 뒷발로 서서 앞발로 스투파를 받치고 있는 사자가 표현되어 있다.



[사진 7] 탐갈리타스 암각화 전경(필자촬영)



[사진 8] 탐갈리타스 암각화 중심 바위면 세부전경

그밖에 티벳 불교사원으로는 **카탈가순-자민-오바 불교사원**, **다르한-초로진-히트 불교사원**, **아블라이키트 불교사원** 등이 알려져 있다 (카를 바이파코프 2017: 576~578).



[사진 9] 테켈리 암각화 중심 바위면 전경(필자촬영)



### Ⅲ.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의 특징과 의의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은 불교의 전파과정에 대한 실증적인 근거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 북부지역에서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신자들이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으로 불교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명확한 물질자료가 바로 중앙아시아의 불교유적인 것이다.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북부지방의 불교유적은 대부분 불교사원이지만, 주르말라 스투파, 아이르탐 스투파, 자르테파 도성 인근 스투파, 테나우 지역 추정 스투파처럼 별도의 건축물 없이 스투파만 잔존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불교사원은 대부분 지상 건물로서, 이 일대의 불교사원에서는 스투파와 공존하는 현상이 많이 관찰된다. 특히 2~4세기 쿠산시대에 불교사원으로 기능했던 유적(카라테파 불교사원, 파야즈테파 불교사원, 아이르탐 불교사원, 우시투르물로 불교사원, 달베르진테파 도성 내부 불교사원(DT-25))에서는 스투파가 모든 사원 내에서 확인되어, 예배대상으로서 스투파의 의례적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소그디아나와 페르가나 지방은 아직 불교유적이 각각 하나씩만 확인되어 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지만, 중앙아시아에서 불교가 가장 성행하였던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과 세미레치예 지방 사이 불과 전파의 통로로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메르브 지방은 투르크메니스탄 동부의 무르잡 강안에 위치한 가우르칼라 도성 내부의 불교사원과 인근의 스투파 유적이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고고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된 불교문화 전파의 서단이라는 점에서 지리적 의의가 큰 지역이다.<sup>3)</sup>

세미레치예 지방은 중앙아시아에서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에 이어 많은 불교유적이 밀집한 곳으로 중국과 인접하여 7세기 이후에는 중국 불교, 더 이후 시기에는 티벳 불교의 영향으로 다수의 불교유적이 확인되었다.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 불교유적에서는 스투파가 다수 확인되었으나, 세미레치예 지방에서는 티벳 불교가 도입되기 전에는 단 한 기의 스투파도 확인된 바 없어, 당시 불교도들의 예배 대상이 스투파가 아

3) 2023년 4월 이집트 홍해 해안가에 위치한 고대도시 베레니케의 이시스 사원 유적에서 초기 로마시대에 인도에서 온 부유한 상인들에 의해 봉안된 것으로 추정된 높이 71cm의 석불 입상이 발견되었다. 현재로서는 해상실크로드를 통해 교역하던 불교도인 인도 상인들의 현지 신앙 거점에 불상, 산스크리트어 비문 등이 남겨진 것으로 보이며, 불교문화가 전파된 적극적인 증거로 해석하기에는 추가적인 자료가 더 필요하다.

<https://www.hyunbu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15> (현대불교 2023.5.9.)

년 불상으로 옮겨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아크베심 불교사원 전실에서 확인된 4구의 대형 불상, 아지나테과 불교사원의 12m 대형 열반상 등이 명확한 증거이다. 이처럼 키르기스스탄 북부, 카자흐스탄 남부 초원지대의 불교유적들은 박트리아-토하리스탄 후기 불교문화의 영향뿐 아니라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전기 불교문화가 동쪽으로 전파되어 형성된 중국 당(唐, 618~907)대 불교문화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은 시기별로 크게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중앙아시아 전기 불교문화(1기)는 2~4세기를 중심으로 한 박트리아-토하리스탄의 불교문화이다. 인도, 파키스탄 지역에서 발생한 불교가 중앙아시아로 처음 전래된 기원 전후시기부터 4세기까지로 당시 중앙아시아 남부지역인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일대에 형성된 카라테과 불교사원, 파야즈테과 불교사원, 아이르탐 불교사원과 스투과 등의 유적이 잘 알려져 있다. 당시 쿠산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2세기 카니슈카 1세의 통치기에 타림 분지의 서역 남도에까지 아프가니스탄, 간다라, 박트리아 지방의 불교문화가 전파된 것이다.

중앙아시아 후기 불교문화(2기)는 7~8세기를 중심으로 박트리아-토하리스탄 지방과 세미레치예 지방에서 흥성한다. 아지나테과 불교사원, 히시트테과 불교사원, 크라스나야 레치카 제1·제2불교사원, 아크베심 제1·제2·제3불교사원, 코일릭 불교사원 등의 다양한 유적이 확인되었다. 이 시기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에서는 불교의 힌두화가 진행되어 그 기반을 잃어가던 시기이다. 이는 불교의 중심지가 이제 인도를 벗어나 중앙아시아, 중국 등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입증해주며, 지역 종교가 아닌 세계 보편종교로서 불교가 형성되는 과정인 것이다.

카자흐스탄 남동부 세미레치예 일대에서는 또한 티벳불교가 흥성하면서 티벳불교사원(아블라이키트 불교사원), 불상과 진언이 새겨진 암각화(탐갈리타스 유적, 테켈리 유적) 등이 17세기 이후 텐산산맥 이북 지역에서 확인되었다. 하지만 앞선 시기처럼 불교의 영향력이 커서 별도의 문화기를 형성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자료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다.

중앙아시아로 불교가 유입될 당시 불교는 이전에 전파되었던 조로아스터교 등 타종교와 갈등하면서 문화집변을 통해 자리를 잡아갔다. 불교사원에서 불과 관련된 의례의 흔적이 보이거나, 화염불 벽화 등은 이러한 재지종교와 신흥종교로서 불교가 만나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과정인 것이다. 불교건축에서도 재지의 재료와 기후특징을 고려하여 건조벽돌, 사암층을 파고 들어간 석굴사원, 기둥과 지붕을 세워 태양을 차단한 아이반 형식 등이 불교건축에 새롭게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양상 또한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의 중요한 의의인데, 중앙아시아 지역은 단순히 문명의 전달자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문명을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소화, 발전시켜 타지역으로 전파한 것이다.

## Ⅵ. 맺음말

불교는 발생지를 떠나 타지역에서 변형과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가 되었으며 아시아 문명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불교의 이러한 발전에는 전파가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만약 불교가 전파되지 않았으면 불교는 인도에서 힌두교에 그 지위를 물려주고 소멸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아시아 불교유적은 북방불교 전파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확인된다.

본 논문은 1926년 고대 테르메즈 동쪽에 위치한 주르말라 스투파가 불교유적으로 확인되면서 시작된 중앙아시아 불교연구 100여년의 조사현황을 개관하고 그 의의를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원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본 논문에 포함되지 못한 일부 유적들에 대한 서술과 수록자료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중앙아시아 불교 문화의 기원과 관련하여 박트리아-토하리스탄 남부(아프가니스탄)와 파키스탄, 인도의 불교유적과의 비교, 중국 서역지방(신장위구르자치구) 불교유적·유물과의 비교를 통한 중앙아시아와 중국 불교문화의 영향 관계, 초기불교유적에 반영된 불교사상, 실크로드를 통한 물질문화 및 정신문화 교류양상 등은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연구를 이어갈 예정이다.

대한민국은 G20에 속하는 경제대국으로, 국제사회 여러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금 중앙아시아에는 카라테파 불교사원을 비롯한 많은 귀중한 고고유적들이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기다리고 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sup>4)</sup>에서 추진하였던 중앙아시아 불교사원 발굴조사와 같은 해외 소재 문화유적 공동조사가 좀 더 확대, 발전되어 인류 공동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연구·보존하는데 대한민국이 좀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투고일 2024. 8. 6 | 심사완료일 2024. 9. 24 | 게재확정일 2024. 10. 10

4) 2024년 5월 17일, 변화된 정책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맞춰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참고문헌

- 한국어 -

- 고마츠 히사오 외, 2005, 『중앙유라시아의 역사』, 소나무.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우즈베키스탄 쿠산왕조와 불교』.
- \_\_\_\_\_, 2021, 『실크로드 미술사전 - 서부 : 중앙아시아 서투르키스탄』.
- 국립문화재연구소·우즈베키스탄 학술원 예술학연구소, 2019,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
- 국립중앙박물관, 2009, 『동서문명의 십자로, 우즈베키스탄의 고대문화』(2009-2010 한국박물관계관 100주년 기념전 도록).
- \_\_\_\_\_, 2010, 『실크로드와 둔황 - 혜초와 함께하는 서역기행』(2010년 특별기획전 도록).
- \_\_\_\_\_, 2013,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중앙아시아 종교 회화』(일제강점기 자료조사 보고 7집).
- \_\_\_\_\_, 2015, 『고대불교조각대전』.
- 김동훈, 2019,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 현-우즈벡 공동발굴조사(2011-2014) 성과」, 『シルクロードを掘る(실크로드를 발굴하다)』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일본 테이쿄대학.
- \_\_\_\_\_, 2022,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의 고고조사 현황과 시기별 성과」, 『중앙아시아연구 제27호 제1권』, 중앙아시아학회.
- 김영중, 2009, 『실크로드, 길 위의 역사와 사람들』, 사계절.
- 디트리히 제켈, 2002, 『불교미술』, 예경.
- 르네 그루셰, 1998, 『유라시아 유목제국사』, 사계절.
- 마노 에이치 외, 2009, 『교양인을 위한 중앙아시아사』, 책과함께.
- 마쓰창 외, 2006, 『중국 불교석굴』, 다홀미디어.
- 미야지 아키라, 2006, 『인도미술사』, 다홀미디어.
- 민병훈, 1999, 「서투르키스탄의 諸宗教遺蹟 및 出土遺物 - 佛敎와 조로아스터敎를 中心으로」, 『미술사연구』 13, 미술사연구회.
- \_\_\_\_\_, 2005, 『초원과 오아시스 문화 중앙아시아』, 국립중앙박물관.
- \_\_\_\_\_, 2015, 『실크로드와 경주』, 통천문화사.
- 발레리 한센, 2015, 『실크로드 - 7개의 도시』, 소와당.
- 배재훈, 2015, 『세계의 석굴』, 사회평론.
- 샤키르드잔 피다예프, 2012, 「고대 테르메즈 지역 불교유적의 역사」, 『2012 Asia Archaeology』 국제학술심포지엄 자료집, 국립문화재연구소.
- 소운 스님, 2004, 『하룻밤에 읽는 불교』, 랜덤하우스.
- 梁基勳(照邇), 2011, 『대월지국의 불교미술에 대한 고찰』,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 梁銀景, 2004, 「中國 佛敎石窟의 概念과 分布, 發展史」, 『中國史研究』 第29輯.
- 이주형, 2004,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 - 사라진 바미안 대불을 위한 헌사』, 사회평론.
- \_\_\_\_\_, 2006, 「인도·중앙아시아의 圓形堂과 석굴암」, 『中央아시아研究』 第11號.
- \_\_\_\_\_, 2015, 『간다라 미술』, 사계절.
- 李漢祥, 2007, 「新羅墳墓 속 西域系文物의 現況과 解析」, 『한국고대사연구』 45.
- 이희봉, 2008, 「인도 불교석굴사원의 시원과 전개 - 힌두교, 자이나교, 아지미파의 관련과 함께」, 『건축역사연구』 제17권 4호.
- 임영애, 1996, 『서역불교조각사』, 일지사.
- 정수일, 2001, 『고대문명교류사』, 사계절.

정수일, 2006, 『실크로드 문명기행 - 오아시스로 편』, 한겨레출판.  
 \_\_\_\_\_, 2013, 『실크로드 사진』, 창비.  
 정수일 편저, 2014a, 『해상 실크로드 사진』, 창비.  
 \_\_\_\_\_, 2014b, 『실크로드 도록 - 해로편』, 창비.  
 최선주·허형욱, 2006, 『불교소각』, 국립중앙박물관.  
 카를 바이파코프, 2017, 『카자흐스탄의 실크로드』, 국립문화재연구소.  
 프랑크 라이너 세크·만프레드 괴르겐스, 『불교』, 예경.  
 피터 홉커크, 2000, 『실크로드의 악마들』, 사계절.  
 \_\_\_\_\_, 2008, 『그레이트 게임』, 사계절.  
 한국문명교류연구소, 2014, 『실크로드 도록 - 육로편』, 창비.  
 현대건축관련용어편찬위원회, 2011, 『건축용어사전』, 성안당.

- 일본어 -

シルクロード學研究センター, 1997, 『中央アジア北部の仏教遺跡の研究(シルクロード學研究 Vol.4)』. (실크로드학연구센터, 1997, 『중앙아시아북부의 불교유적의 연구(실크로드학연구4)』).  
 岩本篤志, 2019, 「カラ・テペ(ウズベキスタン)の調査發掘 2014~2018」, 『シルクロードを掘る』資料集. 東京帝京大學. (이와모토 아츠시, 2019, 「2014-2018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페 발굴조사」, 『실크로드를 발굴하다』 국제학술대회 자료집. 도쿄 테이코대학.)  
 公益財団法人 東洋哲學研究所 編, 2023, 『シルクロード研究論集 第1卷 佛敎東漸の道 インド・中央アジア篇』. (공익재단법인 동양철학연구소 편, 2023, 『실크로드연구논집 제1권 불교동점의 길 - 인도·중앙아시아편』).

- 러시아어 -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 Всесоюзная центральна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по консервации и реставрации музей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1972, Буддийский культовый центр Кара-тепе в Старом Термезе.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에르미타시 박물관, 예술보존복원 중앙학술연구소, 국립 동양민족예술박물관, 1972, 『고대 테르메즈의 불교문화중심지 카라테페』.)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СС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рдена ленина Эрмитаж,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Всесоюзная центральная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ая лаборатория по консервации и реставрации музейных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ценностей, 1975, Новые находки на Кара-тепе в Старом Термезе.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에르미타시 박물관, 국립동양민족예술박물관, 예술보존복원 중앙학술연구소, 1975, 『고대 테르메즈 카라테페 유적에서의 새로운 발견물들』.)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научный совет по проблемам археолог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Институт археологии академия наук УзССР, 1976, Бактрийские древности. (소련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중앙아시아와 카자흐스탄 고고학 학술위원회, 우즈베키스탄공화국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1976, 『박트리아의 고대』.)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Ордена трудового красного знамени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ССС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ордена ленина Эрмитаж,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Всесоюзный

-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реставрации, 1982, Буддийские памятники Кара-тепе в Старом Термезе.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에르미타시 박물관, 국립동양민족예술박물관, 예술복원중앙학술연구소, 1982, 『고대 테르메즈의 불교유적 카라테페』.)
- Альбаум Л.И., 1955, Буддийский храм в долине Санзара, Доклады Академии наук Узбекской ССР No.8. (알바움 L.I., 1955, 『산자르 계곡의 불교사원』, 『우즈베크소비에트공화국 과학아카데미 논문집 8』.)
- Аманбаева Б.Э., Кольченко В.А., Сулайманова А.Т., 2015,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Памятники на Кыргызстанском Участке Великого Шёлкового Пути. (아만바예바 B.E., 콜첸코 V.A., 슬라이마노바 A.T., 2015, 『실크로드 키르기스스탄 지역의 고고학 유적』.)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1969, Буддийские пещеры Кара-тепе в Старом Термезе. (에르미타시 박물관, 국립동양민족예술박물관, 소련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1969, 『고대 테르메즈의 불교석굴 카라테페』.)
-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 Институт Восточных Рукописе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08, Пещеры тысячи будд –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на шелковом пути, Издательств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Эрмитажа. (에르미타시 박물관,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필사본연구소, 2008, 『천불동(千佛洞) – 러시아의 실크로드 탐사』, 에르미타시 박물관 출판부.)
- Грек Т.В., Пчелкина Е.Г., Ставский Б.Я., 1964, Кара-тепе – буддийский пещерный монастырь в Старом Термезе. (그렉 T.V., 프첸키나 Ye.G., 스타비츠키 B.Я., 1964, 『카라테페 – 고대 테르메즈의 불교석굴사원』.)
- Ерофеева И.В., 2017, Буддийские монастыри ойратов в Семиречье(середина XVII – середина XIX в.), MONGOLICA – XVIII, Институт восточных рукописей РАН. (예로페예바 I.V., 2017, 『세미레치예 지방의 오이라트 불교승원(17세기 중반-19세기 중반)』, 『몽골학 18』,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필사본연구소.)
- Заблин Л.П., 1961, Второй буддийский храм Ак-Бешимского городища. (자블린 L.P., 1961, 『아크베심 도성 제2 불교사원』.)
- Институт Восточных Рукописе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008, Россий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в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в конце XIX – начале XX века.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필사본연구소, 2008, 『19세기 말 – 20세기 초 중앙아시아로의 러시아인들의 탐사』.)
- Институт искусствознания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Центр по изучению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Университет Сока, 2012, Дальгарзинтега Итоги раскопок на втором буддийском храме. (우즈베키스탄학술원 예술학연구소 · 소카대학교 실크로드연구소, 2012, 『달베르진테페 제2불교사원 발굴보고서』.)
- Копеленко Г.А., Мунчаев Р.М., Гафлов В.А., 2014, Археология Афганистана в дни мира и дни войны, ИА РАН. (코펠렌코 G.A., 문차예프 R.M., 가이보프 V.A., 2014, 『평상시(平常時)와 전시(戰時)의 아프가니스탄 고고학』,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고고학연구소.)
- Кызыласов Л.Р., 1959,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городище Ак-Бешим в 1953–1954 гг., Труды Киргизской археолого-этнографиче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Т. II. (키즐라소프 L.R., 1959, 『1953-1954년 아크베심 도성의 고고학 연구』, 『키르기스 고고학민족학담사대의 작업 II』.)
- Литвинский Б.А., Зеймал Т.И., 1971, Аджина-Тепе, (리트빈스키 B.A., 제이말 T.I., 1971, 『아지나테페』.)
- Литвинский Б.А., Соловьев В.С., 1985, Средневековая культура Тохаристана. (리트빈스키 B.A., 솔로비예프 V.S., 1985, 『토하리스탄의 중세문화』.)
- Литвинский Б.А., 2001, Буддизм в Средней Азии(Проблемы изучения)//Вестник древней истории 4(239). (리트빈스키 B.A., 2001, 『중앙아시아의 불교(연구의 문제점)』, 『고대사 연보』.)



- Мкртчян Т.К., 2002, Буддийское искусство Средней Азии(I-X вв.). (므크르티어체프 T.K., 2002, 『중아시아의 불교예술(1-10세기)』.)
- Менкерис В.А., 2004, Индийские традиции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культуре Средней Азии. (메시케리스 V.A., 2004, 『중아시아 예술문화에서의 인도 전통』.)
- Пидаев Ш.Р., 1978, Поселения Купанского времени Северной Бактрии. (피다예프 Sh.R., 1978, 『북부박트리아의 쿠산시대 주거유적』.)
- Пидаев Ш.Р., 2011, Буддизм и буддийское наследие древнего узбекистана. (피다예프 Sh.R., 2011, 『고대 우즈베키스탄의 불교와 불교유산』.)
- Пиличко В.Н., 1976, Раскопки святилища позднекупанского времени на городище Зар-тепе, Бактрийские древности. (필리чко V.N., 1976, 『자르테페 도성의 후기 쿠산시대 불당 발굴조사』, 『박트리아의 고대』.)
- Пугаченкова Г.А., 1966, Халчаян. (푸가첸코바 G.A., 1966, 『할차얀 유적』.)
- Пугаченкова Г.А., 1971, Скульптура Халчаян. (푸가첸코바 G.A., 1971, 『할차얀 유적의 조각』.)
- Пугаченкова Г.А., Рывалдзе Э.В. и др., 1978, Дальверзинтепе—Купанский город на юге Узбекистана. (푸가첸코바 G.A., 르트벨라제 E.V. 외, 1978, 『달베르진테페-우즈베키스탄 남부의 쿠산시대 도성유적』.)
- Россий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Институт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Министерство культуры Росс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рмитаж,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музей искусства народов восток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й институт реставрации, 1996, Буддийские комплексы Кара-тепе в Старом Термезе. (러시아과학아카데미 동양학연구소, 에르미타시 박물관, 국립동양민족예술박물관, 국립복원학술연구소, 1996, 『고대 테르메즈의 불교복합유적 카라테페』.)
- Северная Бактрия. Археология СССР. Древнейшие государства Кавказа и Средней Азии, 1985. (『북부 박트리아』, 『소련의 고고학 - 카프카스와 중아시아의 고대국가』, 1985.)
- Ставицкий Б.Я., 1977, Купанская Бактрия: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스타비츠키 B.Ya., 1977, 『쿠산시대의 박트리아: 역사와 문화에서의 문제점』.)
- Ставицкий Б., 1986, Четверть века на Каратепе. (스타비츠키 B., 1986, 『카라테페에서의 25년』.)
- Ставицкий Б.Я., 1998, Судьбы буддизма в Средней Азии. (스타비츠키 B.Ya., 1998, 『중아시아 불교의 유래』.)
- 영어 -
- Akmal Ulmasov, 2018, Reconstruction of the Zurmala Buddhist Stupa in Termez, Uzbekist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novative Science, Engineering & Technology Vol 5 Issue 5. (아크말 울마소프, 2018,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주르말라 불교 스투파의 복원』, 『혁신 과학, 공학, 기술 국제저널』 5권 5판.)
- Janos Harmatta etc, 1994,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II. (자노스 하르마타 외, 1994, 『중아시아의 문명사』 II.)
- Litvinsky B.A. etc, 1996,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III. (리트빈스키 V.A. 외, 1996, 『중아시아의 문명사』 III.)
- National museum of asian arts GUMMET, 2012, Collections guides.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 기메, 2012, 『컬렉션 가이드』.)
- Shokirjon Pidayev, Kato Kyuzo, 2010, The Excavation on the North and West (Central) Hill of Kara-Tera (1998-2007). Совеща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специалистов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вклад

Японии. (사키르드잔 피다예프-카토 쿄조, 2010, 「카라테파 북쪽언덕과 서쪽(중앙)언덕에서의 발굴조사(1998-2007)」, 『중아시아의 문화유산과 일본의 기여에 대한 지역전문가들의 협의회』.)

The British museum, 2009, Treasures of the British museum. (영국박물관, 2009, 『영국 박물관의 보물들』.)

Shakirdjan R. Pidaev, Translated by Nobuo Yamagishi, 2020, On the History of Buddhist Structures in Tarmita-Termez, The Journal of Oriental Studies Vol.30. (사키르드잔 R. 피다예프, 노부오 야마기시 역, 2020, 「타르미타-테르메즈 불교건축물의 역사에 대하여」, 『동양학연구 제30집』.)

# The distribution and significance of Buddhist remains in Central Asia

Kim, Dong-Hun(Senior Researcher, Gyeong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Buddhist remains in Central Asia are found in five regions: Bactria-Toharistan region in southern Uzbekistan and in southwestern Tajikistan, Fergana region in eastern Uzbekistan and Sogdiana region in central Samarkand, Merv region in eastern Turkmenistan, and Semirechiye region in north-eastern Kyrgyzstan. They are dated from around the 1st century to the 9th and 10th centuries.

Most of the Buddhist remains in the northern part of Bactria-Toharistan region are Buddhist temples, but there are only stupas remained without temple buildings such as the Jurmala Stupa and Airtam Stupa. The Karatepa Buddhist Temple, the Fayaztepa Buddhist Temple, and the Buddhist Temples inside and outside the capital city Dalverzintepa are built on the Kushan period in the 2nd and 4th centuries and stupas are found in all these temples. Semirechiye is the region where Buddhist remains are clustered following Bactria-Toharistan region and was influenced by Chinese Buddhism after the 7th century and Tibetan Buddhism later. Not stupas but a large Buddha statue and a large statue of nirvana are found at Akbeshim Buddhist Temple and Ajinatepa Buddhist Temple, respectively, that represents the change in the object of worship.

The Buddhist remains of Central Asia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periods. The Bactria-Toharistan Buddhist culture from the 2nd to the 4th centuries was the first period of Buddhist culture in Central Asia, when Buddhism was first introduced

and settled in Central Asia along with the expansion of the Kushan Empire. The late Buddhist culture of the Central Asia flourished in Bactria-Toharistan and Semirechiye regions in the 7th and 8th centuries was the second period, and the center of Buddhism moved to East Asia.

It was confirmed that Buddhism in Central Asia was developed by exchanging influences with other religions, such as Zoroastrianism previously propagated through traces of rituals related to fire or murals in Buddha statue with a flame-shaped halo. In Buddhist architecture, the use of drying bricks and the construction of stone cave temple that dug into the sandstone layer are ref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material and climate characteristics of the site. As such, it can be seen that the Central Asia did not simply serve as a messenger of civilization, but rather accepted, developed, and spread it to other regions.

**Key words : Central Asia, Buddhist remains, Distribution status, Bactria-Tokharistan region, Semirechye region**